

‘K2 득점왕’ 나상호 국대로 날다

금호고 후배 김정민과 함께
국가대표팀 벤투호에 승선
17일 호주·20일 우즈벡과 A매치
“데뷔전·데뷔골 넣겠다
광주FC 승격에도 최선을”



김정민

광주 FC ‘에이스’ 나상호가 득점 1위, 금메달리스트에 이어 또 다른 타이틀을 얻었다. 축구 선수들의 꿈 ‘국가대표’가 나상호의 새로운 이름이다.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17일과 20일 호주,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벤투 감독이 들고나온 명단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이름 나상호도 있었다.

U-18(금호고) 출신의 나상호는 올해 초 FC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한 모교 후배 김정민과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생애 첫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박진섭 감독 부임 이후 팀의 불박이 주전으로 도약한 나상호는 올 시즌 15골을 넣으면서 최종전을 앞둔 K리그 2의 득점 1위다. 2위 FC 안양 알렉스와는 1골 차. 그리고 지난 8월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골을 터트리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나상호는 올 시즌 활약을 발판 삼아 A매치라는 더 큰 무대에 오르게 됐다.

나상호는 “꿈에 그리던 성인 축구국가대표팀이



첫 A매치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광주 FC의 에이스 나상호.

<광주 FC 제공>

때문에 지금 기분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앞두고 벤투호 A대표팀 발표가 있었다. 당시 대기명단에만 있었는데, 룸메이트였던 (손)흥민이 형이 ‘너도 충분히 A대표팀에 갈 수 있으니 힘내’라고 격려해 줬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빨리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웃었다.

승승장구로 표현할 수 있는 나상호의 2018시즌. 나상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나상호는 “최근 엄청 높이 점프를 한 뒤 착지하는

꿈을 꿔다. 해몽을 찾아보니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징조라고 하더라”며 “아시안게임에서 완벽한 활약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올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컨디션이라면 뭐든 더할 수 있을 것 같다. 태극마크에 만족하지 않고 A매치 데뷔전, 데뷔골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의 아들’로 영역을 넓혀온 나상호에게는 대표팀 합류 전에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도 있다.

선수 수급 문제로 아산 무궁화가 승격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광주는 5위를 확정하고,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6위 안양과는 승점 2점 차. 안양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승리로 기본 좋게 5위를 차지하는 게 올 시즌을 부지런히 달려온 광주의 목표다. 에이스가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한다. 바짝 쫓아온 알렉스를 따돌리고 ‘득점왕’도 차지해야 한다.

한편 나상호는 1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안산과의 경기를 마친 뒤 12일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산 퇴출 여부 19일 최종 결정

경찰청 선수 수급 중단으로 논란

아산 무궁화의 승격 여부가 오는 19일 최종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아산 무궁화의 2019시즌 K리그 2 승격 자격 ▲개인상 수상자 선정 기준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맹은 아산의 승격 여부에 대해 “19일까지 경찰청이 아산무궁화에 의경 신분 선수의 충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한하여 아산무궁화에 승격 자격을 부여한다. 19일까지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2위를 확정된 성남에 승격 자격을 부여한다”고 결정했다.

K리그 2의 아산은 최종전을 앞둔 현재 20승 9무 6패(승점 69)를 기록하면서 2위 성남 FC(17승 11무 7패·승점 62)를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은 승격 자격을 얻었지만 경찰청이 선수 수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맹 규정상 클럽 자격 최소 인원은 20명이지만 선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즌 아산은 14명으로 팀을 꾸려야 한다.

만약 아산이 19일까지 선수 충원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성남이 승격 자격을 얻는다. 대신 3위 부산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4위 대전 시티즌과 5위 팀이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또 이사회 결과에 따라 최우수선수(MVP), 영플레이어, 최우수감독, 베스트일레븐 등 개인상 수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연맹 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투표만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 시상식부터는 각 팀 주장 30%, 감독 30%, 미디어 40%로 투표인단별 배분이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독일축구 구자철-이재성 포칼컵서 맞대결 펼친다

독일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과 이재성(홀슈타인 킬)이 독일 축구협회(DFB) 포칼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5일(한국시간) DFB가 발표한 2018-2019 포칼 16강 대진에 따르면 구자철의 소속팀인 1부리그의 아우크스부르크와 이재성이 뛰는 홀슈타인 킬의 맞대결이 결정됐다.

포칼 16강전은 내년 2월 6~7일 열린다. 두 팀의 경기는 킬의 홈인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개최된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라운드(32강)에서 마인츠를 연장전 끝에 물리치고 16강에 합류했다. 킬은 1부리그 팀 프라이부르크를 꺾고 16강에 올랐다.

구자철과 이재성 모두 이번 시즌 팀의 주축으로 활약 중이다. 16강전에서 맞대결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벤투 감독 “선수 구성에 변화 ... 플레이 스타일 완성도 지켜봐달라”

아시안컵 이전 마지막 평가전
손흥민·기성용·이승우 빼고
전남 수비수 이유현 등 발탁

축구 대표팀 11월 A매치 소집 명단

FW	황의조(김바 오사카), 석현준(스타드랭스)
MF	이청용(보훔), 황인범(대전), 김정민(리퍼링), 정우영(알사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김승대(포항), 남태희(알두하일), 이진현(포항), 나상호(광주), 황희찬(함부르크), 문선민(인천)
DF	김영권(광저우), 정승현(가시마), 권경원(텐진 취안젠), 김민재, 이용(이상 전북), 박지수(경남), 이유현(전남), 김문환(부산), 홍철(수원), 박주호(울산)
GK	김승규(빛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조현우(대구FC)

연합뉴스

부임 이후 첫 원정 경기를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원정 분위기에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전보다 짧아진 경기 간격에서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투 감독은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호주 원정 평가전(17일 호주·20일 우즈베키스탄)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이전 마지막 평가전인 이번 경기 명단엔 ‘에이스’ 손흥민(토트넘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5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호주 원정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을 비롯해 기성용(뉴캐슬), 이재성(홀슈타인 킬), 이승우(베르더) 등이 빠졌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장현수(FC 도쿄)도 합류하지 못했다.

대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김정민(리퍼링)과 나상호(광주)를 처음 발탁했다. 수비수 이유현(전남)도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다는 기쁨을 맛봤다.

벤투 감독은 “기성용은 선수와 개인적으로 이 야기 한 결과 배려해 제외했다. 이승우는 같은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발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선수 구성에 변화가 있지만, 우리 플레이 스타일의 완성도를 얼마나 가다듬는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녹아들지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첫 해외 원정에 나서는 대표팀은 12일 인천공항에서 소집돼 경기가 치러지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한다.

◇축구대표팀 11월 A매치 소집 명단(26명) ▲GK = 김승규(빛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

사카), 조현우(대구FC) ▲DF = 김영권(광저우), 정승현(가시마), 권경원(텐진 취안젠), 김민재, 이용(이상 전북), 박지수(경남), 이유현(전남), 김문환(부산), 홍철(수원), 박주호(울산) ▲MF = 이청용(보훔), 황인범(대전), 김정민(리퍼링), 정우영(알사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김승대(포항), 남태희(알두하일), 이진현(포항), 나상호(광주), 황희찬(함부르크), 문선민(인천) ▲FW = 황의조(김바 오사카), 석현준(스타드랭스)

/연합뉴스

유소년야구클리닉 ‘빛 나누는 날’ 12월 4일 고척스카이돔서 열려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 참여

프로야구 스타선수들이 참여하는 2018 유소년야구클리닉 ‘빛 나누는 날’이 12월 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빛 나누는 날’은 야구 꿈나무들의 꿈을 키워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년 30여명의 스타플레이어가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왔다.

이번 행사는 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생(3~6학년·100명), 중학생(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네이버 포스트 참가 신청 안내 포스팅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서울시설공단, 에이치아이씨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